



수요가 많은 휴가철을 틈타 육류와 관련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심해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가격이 급등한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는 모습.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다가온 여름 휴가철... 수입산 육류 국내산 거짓 표기

꼼꼼히 살핀 후 구매를

농관원 전북지원, 표시 위반 108건 적발
쇠고기 56 · 돼지고기 40건 · 닭고기 12건
돼지 · 쇠고기값 고공행진이 주원인

#전주시 한 식육판매업소는 원산지를 미표시하고 돼지고기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도내 한 음식점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명백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다.

수요가 많은 휴가철을 틈타 육류와 관련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부도덕한 상술이 판을 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최근 도내 음식점과 식육전문점을 단속한 결과 곳에 대한 모두 108건을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는 쇠고기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돼지고기는 40건, 닭고기는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위반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돼지고기는 한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체 수요가 몰리는 데다 이달부터 여름 휴가철을 전후한 계절적 수요까지 겹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내산에 비해 수입산 육류의 가격이 저렴, 판매업소들을 유혹하고 있다.

실제로 축산물 시세 정보 사이트인 미트박스에 따르면 국내산 삼겹살 도매 가격은 kg당 1만4,30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수입 삼겹살은 kg당 6,000원~7,000원대로 국내산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다.

또 쇠고기 등심의 경우 국내산 한우 암소는 kg당 4만2,000원~5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입산 육우는 kg당 1만4,000원대로 국내산과 비교해 가격 차이가 컸다.

돼지고기의 경우 최근 소비가 늘어난 것도 한 몫한다. 지난 5월 유통업체 평균 2,450원에 불과하던 국내산 삼겹살(100g 기준)이 6월 들어 17.5% 상승한 2,880원을 기록하는 등 가격이 오르면서 업소들이 원산지 거짓 표시 유혹에 빠지고 있다.

김모(34·전주시 평화동)씨는 "삼겹살 가격이 내렸을 때는 가격 변동이 없다가 수요가 늘어나니깐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뼈물어진 상황에 더욱 화가 난다"며 "원산지 위반 표시 및 유통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장사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사드(THAAD) 배치 공식화... 배치지역 이달 안 발표

후보지역에 군산도 포함... 전북 '경계모드'

경기 평택 · 경북 칠곡 · 충북 음성 · 강원 원주 등 거론

군산은 서해안에 치우쳐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성 낮아
만약 배치시 새만금 사업에 직격탄... 마땅한 대책은 없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가 공식화된 가운데 배치지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배치 후보지역으로는 도내에 군산이 포함돼 있어 전북도 등이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은 지난 8일 공동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핵 · WMD(대량살상무기) ·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 미 공동실무단은 "한 · 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종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드 배치를 협의 중인 한 · 미 공동실무단은 이르면 이번달 안으로 배치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부지 선정과 관련해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준비 중에 있다"며 "수 주 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특정하지는 않았다.

후보 지역으로는 군산을 포함해 경기 평택과 경북 칠곡(왜관),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군산은 적 미사일에 대한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PAC-3) 요격 미사일이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지만 서해안에 치우쳐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 분석이 더욱 우세하다.

그럼에도 군산이 최종 입지로 선정될 경우, 최근 개발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지만 이를 저지할 마땅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협력단지'로 공식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는 같은해 12월 첫 중국기업을 유치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활동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가 군산에 배치되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고 사드 레이더의 전파로 주민의 피해는 물론 각종 전자장비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지역이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고 투자가 가시화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드의 군산배치 거론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역시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논의 과정과 도민 여론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형 기자

▶ 매일 INDEX

3면 삼성 새만금 특위 금강증 풀어줄까? 4면 전주시 공무원노조 시장실 점거 농성 13면 비스트, 장현승은 탈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사례

「김○○(69세 간암환자 의정부 거주)」

“2001년 간암 수술 후 2015년 재발, 비싼 치료비로 치료를 망설였으나 양성자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병원비 부담없이 치료 받고 있음”

보장성 확대 전	보장성 확대 후
치료비 1,700만원	치료비 150만원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2012년	2015년
1조 119억원	3,972억원

환자 부담 61%감소

선택진료비

2012년	2015년
1조 6,524억원	8,064억원

환자 부담 51%감소

간병비(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2012년	2015년
56만원	7만 5천원

환자 부담 86%감소

*4대 중증질환의 수면제사망, 유도호흡기, 고가항암제 등 200여 개 건강보험 적용 (2016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심초사’ 마린보이 박태환, 리우올림픽 나갈 수 있다

CAS 국가대표 자격 인정

대한체육회, 긴급 이사회
“대표 명단에 포함시킬 것”

박태환(27)이 우여곡절 끝에 다음달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8일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함에 따라 수영국가대표 예비 엔트리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CAS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국제수영연맹(FINA) 징계를 받은 박태환이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으로 인해 국가대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가대표로 자격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체육회는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과 관련해 CAS의 잠정처분 결정을 무조건 따르기로 심의 · 의결한 바 있다.

CAS가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잠정 처분 결정을 함에 따라 체육회는 대한수영연맹과



지난 8일 오전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과 관련된 이사회를 열었다.

함께 박태환을 올림픽 국가대표 예비 엔트리에 포함해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된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선수 신분을 회복한 박태환은 지난 4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올림픽 기준 기록을 충족하며 올림픽 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징계를 모두 소화한 뒤에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처지

에 놓이자 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CAS에 잠정 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체육회는 “특정인을 위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며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불허했으나 이번 CAS의 판결에 따라 입장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박태환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부터 4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서 물살을 가르게 됐다.

체육회는 문제가 된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적법절차에 따라 추후 개정하기로 했다. /김민근 기자